3,000배의 법칙

2026-06-19 · 박종훈의 지식한방 · part5_02

> **아마존이 30년에 3,000배 오른 이유는 책을 잘 팔아서가 아니다. 그물(네트워크 독점)을 쳤기 때문이다.**

01 핵심 골격

1. 아마존은 1997년 상장 후 30년이 채 안 되어 약 3,000배 올랐다 — 분할조정 $0.075에서 $232로, 1,000만 원이 약 300억 원이 되는 크기다.
2. 베이조스는 성공 공식을 숨기지 않았다. 1997년 첫 주주서한 'It's All About the Long Term'을 이후 20여 년간 모든 연례 서한에 첨부했다.
3. Day 1 사고와 네 가지 원칙 — 단기 이익 무시, 장기 시장 지배 최우선, 회계 이익보다 현금흐름, 고객 집착.
4. 닷컴 버블 때 주가는 약 20배 올랐다가 1/10 토막이 났지만, 매출·직원·고객 수는 한 번도 줄지 않았다. 시장이 제대로 평가한 것은 2007년 — 알아볼 시간이 10년이나 있었다.
5. 아마존은 유통업, 구글·메타는 광고업이라는 레거시 산업이다. 시가총액 3,000조·3,500조·2,500조 원을 만든 차이는 네트워크 효과 하나다.
6. 락인이 그물을 완성한다. 카카오톡이 광고를 크게 늘렸을 때도 실제 탈퇴자는 거의 없었다.
7. 학술적으로는 메칼프(1980)의 N^2 — 2명이면 연결 1개, 4명이면 6개 — 와 리드(1999)의 2^N. NFX 집계로 1994년 이후 테크 가치의 70%가 네트워크 효과 기업에서 나왔다.
8. 앤드류 첸의 5단계(시작-임계점-폭발-포화-해자). 강의가 '골든존'이라 부르는 지점은 2→3 전환점이며, 신호는 '주변에서 다 쓰기 시작할 때'다.

9 강사 진단 — AI에는 아직 네트워크 효과가 없다. 본인이 유료 AI 다섯 개를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한다.

10 다만 강의는 단계가 곧 답이 아니라고 단서를 단다. 3단계여도 야후처럼 무너질 수 있고, 5단계 엔비디아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것. 중요한 건 그 단계 대비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다.

11 가짜 그물 세 유형 — 자산이 네트워크와 무관(위워크), 락인 없음(우버·리프트), 임계점 전 강력한 경쟁자(퀴비). 판별 기준은 'AI 시대의 진짜 자산은 데이터'다.

12 야후를 구글이 2002년 후반에 역전했듯 후발주자는 언제든 나온다. 원인은 기존 강자의 매몰 비용이다.

13 그물에 닿기 전 두 개의 전쟁이 있다 — 가격 전쟁은 에너지, 품질 전쟁은 데이터. 그리고 장악하고 나면 그 경쟁이 끝난다는 것이 강의의 마지막 진단이다.

02 최신 지표 보강 (2026-09-08)

매출 run-rate 추정치가 대비되는 사례 (시간 연장)

오픈AI 2026년 7월 연환산 약 $40B(Sacra 추정) / 앤트로픽 7월 말 약 $65B(블룸버그 인용 2차 매체, 원문 미확인)

출처 ·

AI 업계는 전환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경쟁 중 (검증·반박)

앤트로픽이 챗GPT·제미나이·코파일럿의 대화 기록을 클로드로 가져오는 메모리 임포트 도구 공개

출처 ·

쿠다 해자를 향한 압박 심화 (사례 후속)

구글 8세대 TPU 발표(훈련용 8t·추론용 8i), TPU 출하 2026년 430만 개 → 2028년 3,500만 개 전망. 커스텀 AI 칩 매출 2026년 45% 성장 전망(범용 GPU 16%)

출처 ·

커서의 '독자 모델 없음' 약점 일부 해소 (사례 후속)

2025년 11월 자체 모델 개발 결정, 2026년 3월 Composer 2 출시. 2026년 4월 기준 대형 엔터프라이즈 계정에서 총이익률 흑자 도달

출처 ·

'전력 가격 = AI 가격'의 청구서는 가정에도 간다 (각도 확장)

미국 평균 전기요금 12.76¢/kWh → 17.44¢/kWh(2026년 2월), 36% 이상 상승. PJM은 향후 3년 소비자 전기요금 63억 달러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데이터센터 수요로 분석

출처 ·

03 한국 투자자 — 예의주시 신호 3가지

01 **새 서비스가 나오면 직접 써보라** — 강의가 직접 밝힌 권고. 탈퇴했을 때 정말 불편한지, 정말 못 떠나는지는 써봐야 알 수 있다는 취지

02 **주변에서 다들 쓰기 시작하는 순간을 관찰하라** — 강의가 그물이 자라는 신호로 제시한 시점. 강의는 이 시점을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골든존'이라 부른다

03 **단계 자체보다, 그 단계에 비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보라** — 강의가 '무조건 초기 단계가 좋은 것이 아니다'라며 직접 단 단서

Fanding @kpunch · part5_02